

영암군, 군민 생활불편사항 적극 없앤다

군, 합동설계단 운영...마을안길·축대 등 숙원사업 446건 시행

영암군이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등 군민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 여건에 맞춰 농촌 생활 기반 시설과 소외된 마을 단위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설계단은 시설직(토목) 공무원과 전문 기술자가 참여했다.

또 안전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2개 반 14명으로 구성했다.

군은 올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고품격화 진행되는 지역 여건에 맞춰 농촌생활 기반시설 및 소외된 마을 단위의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반시설도 영농 기계의 대형화를 고려해 맞춤형 대책을 보인다.

세부적으로 군은 마을안길, 축대, 광장, 진입로 확·포장, 취약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6건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군은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1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해결된 주민 불편사항이나 건의내용을 수시로 청취, 군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합동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달 공사 발주 및 착공을 진행한다.

군은 이번 사업 진행으로 자체 설계에 따



영암군은 군민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영암군 제공>

른 설계 용역비를 6억6000만원을 절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김동섭 강진군 대구면장 차량충돌 시험장치 특허 등록 '화제'

교통안전 체험장서 '호응'

강진군청 공무원이 차량충돌 시험장치를 개발, 특허로 등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김동섭(사진) 강진군 대구면장이 개발한 특허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때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을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 장치다.

또 보행자의 터치 주요부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각종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150여 개소의 교통안전 체험장에 이번 특허된 장치를 적용한 보행자 자동차 충돌체험장을 늘리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진군은 특허사용료제 정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강진군성 전면에 위치한 전남교통연수원 내 안전교육체험관에서 처음으로 이 장치를 적용, 충돌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2018년 한해 3만 명이 넘게 체험하는 등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김 면장은 지난 201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통안전분야의 행정달인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강진토하 잡기 한창 청정 지역으로 알려진 강진군 움천면 토하서식장에서 얼음을 깨가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하(土蝦)를 잡는 농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강진 토하는 소화에 특별한 효능으로 조선시대 궁중 진상품으로 유명하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유후부지 발굴 주차장·태양광시설 활용

장흥군이 공유재산 유후부지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주차장이나 태양광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군은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시설관리단을 통해 군유지 2만3969필지(2923만 2982㎡)와 도유지 138필지(7만6062㎡)에 대한 유후부지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 가운데 우선 올해 9개소(3185㎡)는 현재 읍 시가지 일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고, 6개소(22만9273㎡)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유후부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민간인에게 대부계약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군이 관리하고 공공건축물 501동 가운데 정상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89동으로 세외수입은 고작 연간 11억5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남지역 기술직 공무원 채용 일원화"를

현행 시·군별 채용방식으로 선호 지자체에만 몰려 장흥군, 건설행정직 결원 심각 현안사업 진행 차질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을 일원화 해줄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흥군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건설과 도시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토목직을 비롯한 시설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현안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장흥군의 경우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시설(토목)직이 유야유야나 아직으로 현재 7명이나 결원상태에 있어 농업용수로와 저수지관리 등 사후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인시책으로 그동안 읍·면별 책임제로 운영해오던 건설행정을 올해부터는 10개 읍·면 가운데 7개면에 근무하는 토목직을 군 본청으로 배치해 설계에서 계약, 감독, 사후관리업무까지 맡게하는 등 도시건설과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했다.

이 같이 군단위 시설(토목)직 공무원이 부족사태에 빠진 것은 전남도가 행정

직을 포함한 모든 직렬을 시·군별로 응시하게하는 공무원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응시자들이 선호하는 지자체로 몰리고, 광주권에 서 떨어진 군 단위 지역은 기피해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처우가 개선되면서 육아휴직과 일반휴직 등이 늘어난 것도 결원이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일부 면장 이하 면 단위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원이 토목이나 건설 현안사업으로 1차로 면사무소를 찾아 해결해 달라고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충원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장흥군은 전남도에 올해부터 신규 공무원채용 과정에서 기술직분야는 도가 일괄 선발해 각 지자체에 배치하는 신규채용방식을 채택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정남진 장흥 물축제 관광객 44% "체류형"

작년 방문객 총 36만명...카드 매출액 16억원 달해

장흥의 대표 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찾은 관광객의 44%가 현지에서 숙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장흥 물축제장에서 2시간 이상 머문 관광객 수와 카드 매출액 등을 분석

한 결과 축제 기간 방문객 비율은 장흥군 인구 4만명 대비 904%로 36만1000여명이 찾았다.

평균 방문 시간은 4.5시간으로, 이들이 장흥에서 사용한 카드 매출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방문객 중 44%가 야간 체류(숙

박)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꼽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물과 숲 그리고 휴(休)'를 주제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탐진강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

살수대접 거리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락 풀파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 추진

장흥군 치매안심센터는 농한기를 맞아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가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상담, 치매카페운영,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흥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영암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진단검사 및 개별검사를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